로컬뉴스

유우종 군산소방서장 취임

제39대 군산소방서장에 유우종 소방정이 취임했다.

유우종(53)(사진) 신임 군산소방서장은 익산소방서 인화파출소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군산소방서 방호과장,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덕진소방서장으로 근무해오다 군산소방서장으로 부임했다.

유우종 신임 군산소방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북아중심지로 발돋움 중인 군산시 소방의 장(長) 직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열정을 갖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군산소방서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며 "현장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김석용 익산소방서장 취임

익산소방서는 13일 오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서 대강당에서 제36대 익산소방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새로 부임하는 김석용(사진) 서장은 1982년 소방에 입문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 소방정책국 구조구급과,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 광주남부소방서장, 고창소방서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석용 서장은 취임시를 통해 소방 본연의 역할과 기본에 충실하고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석용 익산소방서장은 "익산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동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 가정과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예방소방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보건소 폭염 건강수칙 준수 당부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최근 6일간 군산지역에서도 온열질환자가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관내 응급기관을 통해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소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폭염이 집중되는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장시간 야외활동 및 야외작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어린이 및 야외근로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익산시는 13일 이지영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부시장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시는 '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과 하수도 사용개시 전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 등의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 다른 규정들도 적극 검토하여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지영 익산시 부시장은 '필리핀 속담에 '하지 않고자 하면 핑계가 보이고,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며 "부서별로 더 좋은 방법과 대안을 찾도록 각 부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일본 사이타마현 소재 한국식품 수입 판매 기업 신인터내셔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MOU

일본기업인 신인터내셔널이 지난 12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에서 농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999년 설립된 신인터내셔널사는 일본 사이타마현 소재 한국식품을 수입하여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일본 내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있어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며, 7월 중 외국인투자 신고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내 분양 계약 체결을 위해 준비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하윤 단장은 신인터내셔널 기업에 감사와 환영을 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MOU를 체결해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신인터내셔널 기업이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해 협조와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는 전체 공정율 49.8%를 보이고 있고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1?2차 분양 공고된 면적 384,790㎡ 대비 분양계약이 완료된 면적은 158,081㎡로 약 41.1%의 분양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향후 8~10월에 있을 예정인 3?4차 분양면적에 대해 지번을 확정한 가운데 분양대기 중인 업체도 20여개에 달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앞날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된 116,000㎡에 대해서도 4개기업(72,572㎡)이 임대를 기다리고 있어 약 62.6%의 임대를 확정한 상태이다.

6대기업지원시설(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벤처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은 연면적이 28,705㎡이고 93.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포함한 6개 기관이 9월말까지 입주하여 식품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자는 "완공되기 전부터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어느 산업단지보다도 빠른 분양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상반기 해양사고 지난해보다 89% 증가

군산해경 발생현황 조사 결과…개인과실 사고 가장 많아

올 상반기 군산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는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해양사고 37건(250명) 보다 89% 증가한 70건(369명)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했다고 밝혔다.

이는 낚시어선 이용객,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대부분의 사고는 이용자들의 운항부주의·선박 정비소홀 등 인재 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42건(120명)이 발생했으며, 레저보트 10건(30명), 낚시어선 6건(86명) 화물선 3건(4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원인별로는 출항 전 점검불량에 따른 기관고장과 운전미숙 등 개인과실에 따른 사고가 30건(2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상악화에 따른 사고도 13건(119명)이 발생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충돌 8건(52명) ▲접촉 3건(67명) ▲좌초 6건(46명) ▲전복 1건(1명) ▲화재 3건(7명) ▲침몰 2건(1명) ▲엔진, 조타기, 스크류 고장 30건(228명) ▲침수 5건(6명) ▲기타 10건(14명)이 발생했다.

비선박사고로 분류되는 익수·추락·고립·응급환자 등의 사고는 전년 55건(구조 42명, 사망 13명) 대비 소폭 감소한 48건(구조 36명, 사만 12명)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사고 대부분이 운항자 스스로가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일 때"라며 "해양사고를 분석해 하반기 구조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양구조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중국 충칭 북안병원 MOU 체결

최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중국 쓰촨성 충칭에 자리한 북안 병원과 MOU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진로를 모색해 온 원광대병원의 최두영 병원장과 서일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일행이 중국 현지를 방문, 양 병원이 상생 의료사업 계획에 공감함으로써 성사 되었다.

원광대병원은 충칭시 북안병원과의 이번 협약에 따라 재활전문병원과 재활센터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대한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2014년 설립 된 북안병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병원급 사립병원으로 향후 재활센터 및 요양병원, 양로 사업을 확장 할 계획으로 있어 재활치료 및 센터 운영에 경험이 축적 된 원광대병원의 노하우를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병원이 북경이나 상해 방면이 아닌 내륙 지방에 위치한 인구 사천만명의 대도시인 충칭시의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도시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짐에 따라 의료와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광대병원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국책 사업 참여는 물론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필두로 해외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상호 의료진 연수 등 의료 한류 전파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두영 원광대병원장은 "중국 내륙 지방에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개발과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가 낮은 중국 대륙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많다"며 "이제 한걸음을 옮겼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수준 높은 우리 의료 수준을 경쟁력 삼아 13억 중국인에 의료 한류를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모집

청년취업인턴제 통해 취업한 청년들 목돈 마련할수 있도록 지원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수시 모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천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공제사업이다.

참여대상 기업은 고용보험가입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이며, 청년구직자는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참여기준은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이미 재직중인 청년근로자도 정규직 전환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정규직 전환일 7일 이전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신청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인턴신청 홈페이지(http://www.work.go.kr/intern/)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산상의 이현호 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할 목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지원팀(063-453-8602)으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 무기산 불법 보관 업자 등 검거

양식장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업자와 가짜석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업용 무기산을 몰래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업자 A씨(54)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업용무기산(염산) 사용 및 보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에 위치한 공터에서 무기산 총 365통(약 7,300리터)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양식철에는 관계기관의 단속이 강화되어 공업용 무기산을 쉽게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양식철이 아닌 때에 무기산을 미리 구입한 후, 검정 그늘막을 이용해 은밀하게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군산경찰은 가짜석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B씨(47) 등 3명을 검거해 그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탱크로리(3,000리터) 차량을 이용해 정제유 또는 선박용 경유, 등유와 저가 엔진오일 등을 혼합해 가짜석유 약 80,000리터(1억원 상당)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적한 부둣가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가짜 석유를 제조한 후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들에게 리터당 약 200~400원 상당의 이윤을 남기고 가짜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연료펌프 등 주요 부품의 마모나 엔진 정지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고, 경제질서 교란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금강철새여행 프로그램 시민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는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을 지역민이 직접 준비하고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은 서천군과의 상생·화합을 위해 올해 두 번째로 공동개최하는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아이디어 공모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다.

아이디어 공모분야는 체험·전시 프로그램으로 ▲군산시의 생태적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철새축제에 적합한 프로그램 ▲어린이 행복도시 명성에 맞는 어린이가 행복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철새와 생태를 테마로 한 군산시?서천군 상생협력을 상징할 수 있는 공동 연계프로그램 등이다.

접수방법은 군산시 철새생태관리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철새축제 행사기간동안 직접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황병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축제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과 참신한 스토리 개발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군산을 찾아오는 철새와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고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성공기원 바람개비 제작

군산시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업선정 성공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바람개비를 제작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란 농촌중심지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복지, 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서수면은 폐 페트병을 재활용해 2800여명의 서수면민의 염원 메시지와 서명을 담은 바람개비를 제작해 면사무소와 소재지 주요도로변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이 끝난 후에는 바람개비를 농작물 보호를 위한 두더지 퇴치용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삼규 서수면장은 "주민설문조사와 토론회 등 대대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서수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체감형 중심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간담회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에서는 지난 12일 저녁 6시 30분 익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간담회"를 갖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 정착지원 방안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 직업 알선등을 통하여 하루 빨리 사회정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법률 지원과 개개인에 대한 1:1멘토 역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김성중 서장은 "북한의 5. 24조치 이후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폐쇄, 국제적 경제지원 봉쇄 등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에 처해 있는 실정에 목숨을 걸고 자유을 찾아 남한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의 행복과 희망의 시대 구현을 위해 민·경 협력치안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익산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